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4월 12일(음력 3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73 호

교회가야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불자 엄마가 쓴 高2 아들이야기 인터넷서 큰 메아리

"새싹포교 무관심의 결과 · 눈높이 포교 발등의 불" 여론 확산

"하나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거기(교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불자 어머니의 글이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법당 인터넷 카페(cafe.daum.net/dmsvudqjqekd)에 올라온 혜향성 보살의 글이다.

글은 아들이 "교회에 가겠다"고 선언하자 어이없어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혜향성 보살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들이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됐는데, 반 아이들 34명 중에 10명이 담임선생님이 다닌다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이 아들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직접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혜향성 보살이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한 번은 교회가고 한 번은 절에 가라" 뿐이었다.

소극적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혜향성 보살의 글이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올라오자 수많은 누리꾼들이 공감을 나타내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15면

아이디 '정신차리자'라는 누리꾼은 "아이를 절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도 갈 때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디 '관심'이라는 누리꾼도 "매년 초 각 학급(남자고등학교) 종교를 조사하면 35명 중 20명 이상이 개신교이고 가톨릭이 6명, 불교는 2명 정도"라며 '청소년' 포교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대학생' 포교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아이디 '둘이아님'이라는 누리꾼에 따르면 "지금 전국대학의 대불련은 모두 문 닫기 직전이다. 몇몇 남지 않은 회원이 동아리 명맥이라도 지키기 위해 가짜로 회원을 늘려서 학교 동아리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포교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단위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도할 교사불자나 불자 상담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전문인력 부족'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포교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 부족' 등의 원인을 지적했지만 "진단은 있어도 처방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혜향성 보살의 소망처럼 "〈반야심경〉에 맞춰 힙합댄스를 즐기고, 드럼을 두들기고, 연기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날이 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한혜원 사무차장은 '눈높이 포교'를 제안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한곤 과장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출가자 청소년 포교 실습 의무화, 종립학교 내 청소년학과를 개설 등이 방안이다.

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前 회장은 포교원과 교사불자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포교 관련 단체들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담당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주지인사고과시 포교 활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종단 차원의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자비의 연꽃' 가슴가슴에 …

조계종 · 本社 공동캠페인 … 자비연꽃배지 보급

조계종 총무원과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함께 '자비연꽃 달기운동'을 연중 실시한다.

'자비연꽃' 배지는 부처님오신 뜻을 되새기며 재난구호 및 극빈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기금'을 모연을 위해 총무원 사회부가 개당 1000원에 전국 사찰 및 단체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봉축리본을 대신하거나 등불사 동참기념, 행사기념, 이웃에 대한 선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불자 12만 명이 동참, 총 1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파키스탄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활동지원, 병원불자연합회 스리랑카 의료봉사단 파견, 미국 카트리나 피해 구호 지원, 태풍 '나비' 피해 울릉도 지원 등에 사용했다.

(02)2011-1820, 국민은행 023-25-0011-99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 역사 · 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시사회 오세요

신비의 나라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불교적인 깨달음이 잔잔히 녹아있는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가 이달말 개봉됩니다. 개봉에 앞서 4월 25일 저녁 8시50분에 갖는 시사회에 현대불교 애독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회 초대권(1인2매)은 선착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2일 이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팝업창을 참조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전용버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봉사단을 조직해 4월 6일 센터전용 버스를 마련하기 위한 3000만원 모금운동에 나섰다.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 종교지도자 서울에 모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4월 25일 개막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세계평화'를 화두로 한국에 모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는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과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백담사 만해마을 등지에서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타엣 사야도 바단타케사라 미얀마 국립불교승가회 의장, 스리랑카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 전 유네스코 대사, 공자 77대 직계후손 콩더반(孔德班) 중국 취푸(曲阜)시 상공회 전 주석 등 세계 각국 30여명의 종교지도자와 석학을 비롯해 국내의 각 종교계 지도자와 학자 500여명이 참여해 종교지도자대회 · 국제학술대회 등을 펼친다.

대회의 첫 테이프는 4월 25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기원법회'가 끊는다. 기원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어, 정진석 추기경의 치사,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축하 메시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점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월 8일부터 열리는 본 대회는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안 제시' '대통령을 비롯한 올바른 지도자상 정립과 미래한국의 대안제시' 등을 부제로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유대교측의 학술발표가 이어진다. 또 대회기간 중 경주 불국사와 양산 통도사, 서울 순복음교회, 서울 명동성당도 방문한다. 대회의 대미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장식할 계획이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는 "국가간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정법사 조실 석산 스님

'방과후 교실' 현황과 대책 4면
해인사 등산로 변경요청 6면
병원법당 24시 9면
월정사 수행학림현장 18~19면
곡우절 차밭체험 26면
건강 지켜주는 웃음 27면

산문밖의 선 17면
금강경 사경 20년 김복수씨